

2024 예술활동지원사업
Art Activities Support Program

꿈
선
의
세
계
어
적
다
마
주
한

Saem

Artists

최부윤	CHOI booyun
최민건	CHOI mingun
하세가와 이치로	HASEGAWA Ichirou
이케가미 케이이치	IKEGAMI Keiichi
고 헌	KHO hon
이규식	LEE gyusik
이용택	LEE youngtaek
박진명	PARK jinmyung
우노 카츠유키	UNO kazuyuki
야마모토 나오키	YAMAMOTO naoki

Saem 어쩌다 마주한 당신의 세계

The World I Happened to Encounter

근대 이후 현대미술은 이전 더 이상 시각적인 미술이 아닌 오감을 통해 사유하는 미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미술이 지닌 이미지의 재현 방식이나 행위에 있어서 현대미술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여러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미술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제 회화나 조각은 본연적 제작 태도와 형식을 넘어서 사고하고 사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전 장르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미술이 눈으로만 읽어지는 것이 아닌 미술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작가의 창작이란 미시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형식의 발견이거나 무언가가 읽어지는 개념일 것이다. 이번 전시 Saem- 어쩌다 마주한 당신의 세계는 작가 고유의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읽어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서 어떤 풍경이나 현상을 통해 사유했던 것을 시각 이미지로 탄생시키고 이미지화되지 않는 내면의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이다. 어쩌다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의 내면 속 이야기와 당신이 사유하려는 경계 또는 임계점을 통해 또 다른 상상력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近代以降、現代美術はもはや視覚的な美術ではなく、五感を通じて思考する美術とな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過去の美術が持つイメージの再現方式や行為において、現代美術はそれ以上の何かが必要と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さまざまな分野の発展とともに美術にも多くの影響を与え、今や絵画や彫刻は本来の制作態度や形式を超えて、思考し、考えるものとな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このような流れはもはやジャンルの境界も曖昧になり、美術が目で読むだけではなくな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作家の創作とは、微視的な世界で新しい形式を発見することや、何かを読み取れる概念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今回の展示「Saem-偶然出会ったあなたの世界」は、作家固有の視覚と思考を通じて読み取れる世界についての

物語であり、ある風景や現象を通じて思考したものを視覚イメージとして誕生させ、イメージ化されない内面の隠れた絵を探すことです。偶然に出会うことができる作品の内面の物語と、あなたが思考しようとする境界や臨界点を通じて、別の想像力を発見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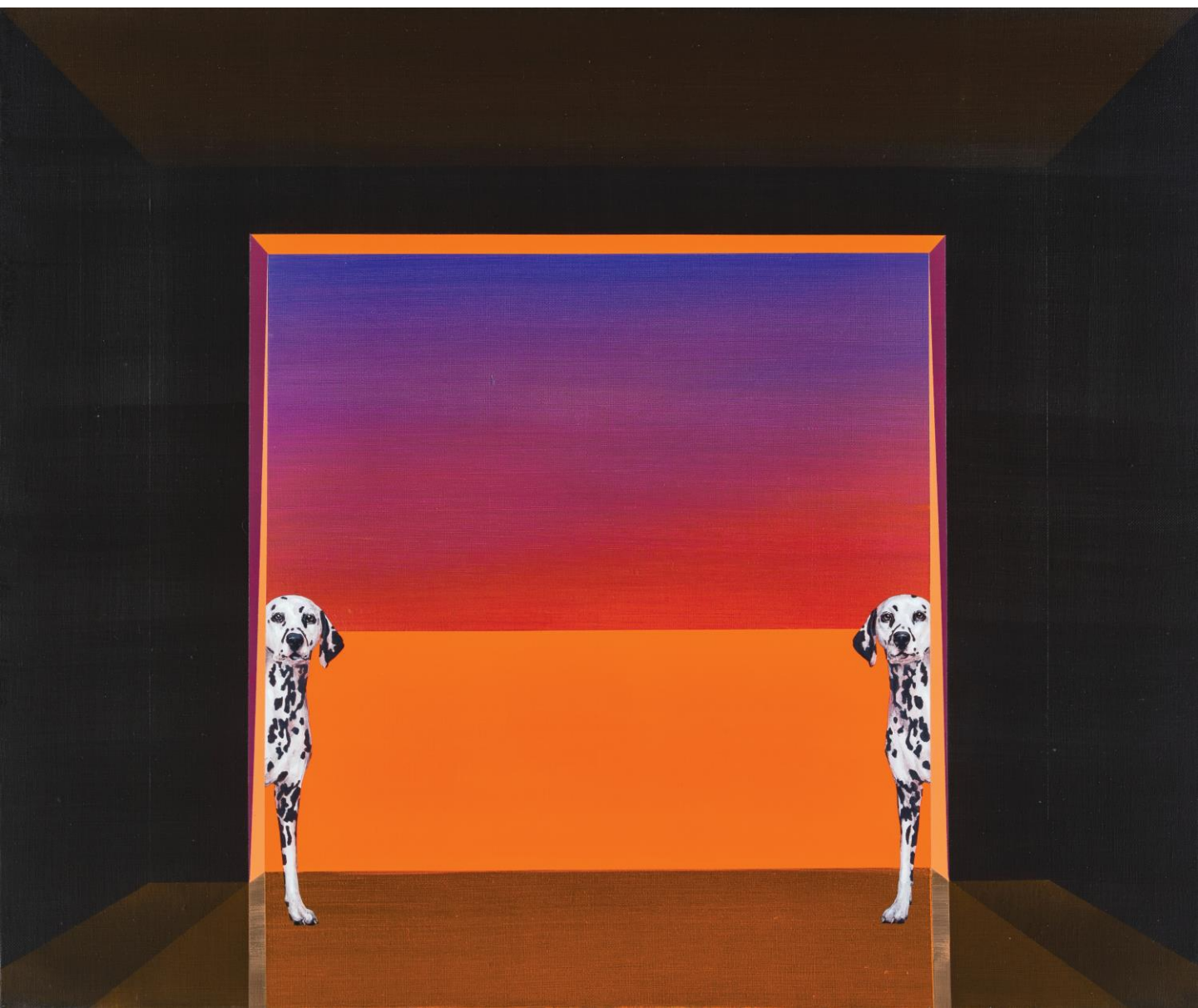
Since the modern era, contemporary art has evolved to become more than just visual art; it has transformed into an art that engages all the senses. While traditional art focused on the reproduction of images and actions, contemporary art requires something beyond that. Influenced by advancements in various fields, art has also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prompting painting and sculpture to transcend their inherent production attitudes and forms to become mediums of thought and reflection. This trend has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making art something that is not only perceived visually. The act of creation by an artist involves discovering new forms within a microcosmic world or interpreting concepts that can be read and understood. The exhibition “Saem - The World You Encountered by Chance” is about exploring the world perceived through the unique perspectives and thoughts of the artist. It involves transforming contemplations of landscapes or phenomena into visual images and uncovering hidden inner pictures that cannot be visualized. Through the inner stories of the works you encounter by chance and the boundaries or thresholds you contemplate, I hope you will discover new realms of imagination.



CHOI booyun 최부윤
After Dark 24-1
가변사이즈, 우레탄페인트 F.R.P, 2024

CHOI booyun 최부윤

내가 탐구하는 방향은 인간관계에서 비가시적인 세계를, 나의 상상과 더불어 작품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비가시적인 감정의 세계가 형상화되고 그 형상이 다시 상상을 만들어 나간다. 작품으로서의 “After Dark”는 형상과 메타포, 현실과 오브제 사이의 간극 즉 경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CHOI mingun 최민건
a borderline between 24-203
72.7×60.6cm, 천위에 아크릴, 2024

CHOI mingun 최민건

현 시대를 보면 가상이 현실을 역전하며, 복제된 가상은 하나하나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오리지널리티와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가상이 또 다른 현실이 되며, 이렇게 구성된 세계는 다차원적인 세계를 구축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해석에부터 출발하였다. 화면에 보여지는 문, 창문, 거울 등은 개별적인 독립적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적 차원에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개의 형상, 그림자등을 배치하였으며, 상상 속의 풍경이나 심정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분열하고 차원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희하고 방황하는 나(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세가와 이치로 - HASEGAWA Ichirou
Grid
72.7×72.7cm, Acrylic on canvas, 2024

HASEGAWA Ichirou 하세가와 이치로

세상의 구조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의 잎과 열매, 거미줄과 벌집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패턴들, 동 식물의 기원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것에 나타나는 규칙성.

그렇다면 인간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로와 가로로 직조된 격자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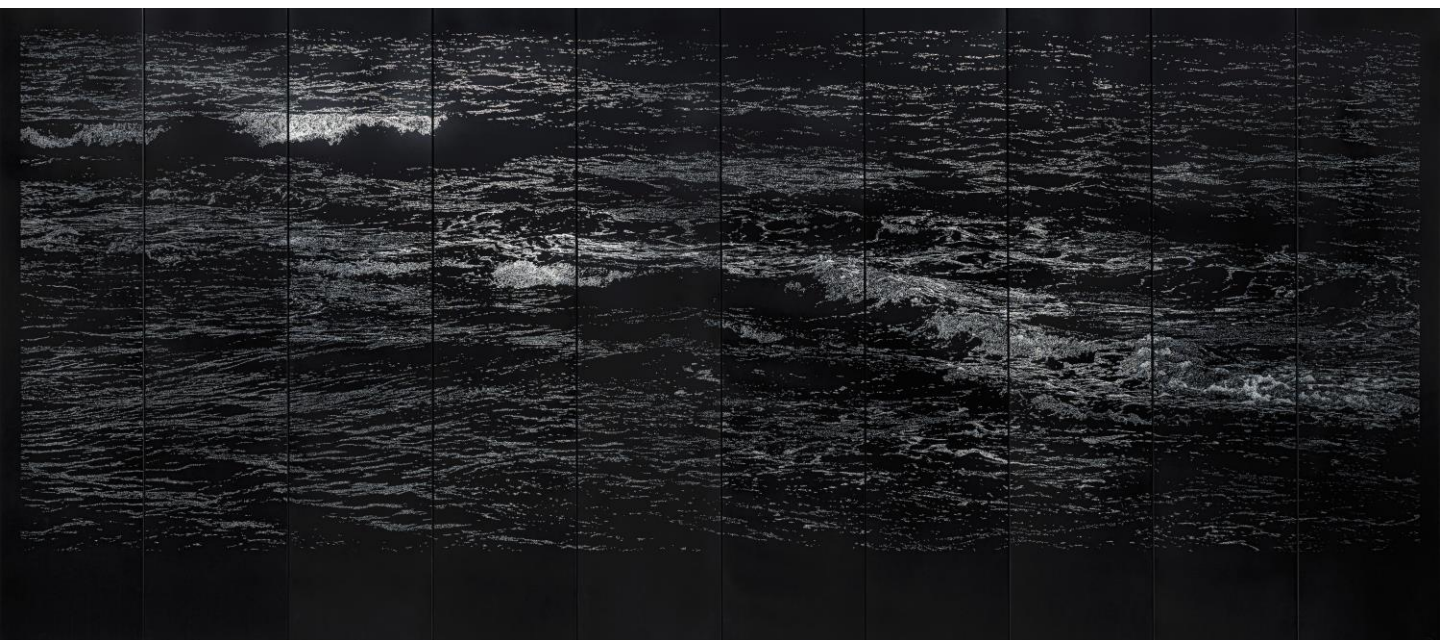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 산과 숲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케가미 케이이치 - IKEGAMI Keiichi
The Potter's Hand S.Y
16×12×6(h)cm, ceramic, 2023

IKEGAMI Keiichi 이케가미 케이이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의 긴장은 촉각을 통해 경직과 이완같은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과 마사지를 통해, 나는 각 개인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경직을 종이와 캔버스에 옮깁니다. "왜 우리 몸은 경직을 경험할까?"라는 질문에 이끌려, 각 몸에서 발생하는 "경직"의 개별적 표현을 탐구합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이순간 탄생하는 독특한 형태를 캔버스에 형성합니다.



고 현 - KHO hon
Pulse 2430

177×400cm, Grinding and polyurethane on aluminum, 2024

KHO hon 고 헌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은 인간의 살, 피부와 가장 멀리 위치해있다.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것은 금속을 다루면서부터다.
철기시대와 기계시대를 거쳐 현재 금속은 우리들 삶의 대부분을 이룬다.
근대는 그 철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유토피아로 가능했다.
도시는 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나는 금속의 피부 위에 직접 이미지를 새긴다.
바다의 일렁임을 직접적인 형상과 추상적 형상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굴절들로 인해, 변화하고 움직이며 진동한다.
나는 금속의 피부 위에 직접 이미지를 새긴다.
나에게 이 물질은 개인적인 상처와 연관된다.
소멸에 대한 슬픔과 상처 속에서 문득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이는 금속을 보았다.
매우 공격적이고 냉정하게 다가온 금속 앞에서
감정과 무관하게 자존하고 있는 저 물질을 다시 생각해 본 것이다.
차가운 금속은 빛을 받으면서 눈부시게 발광한다.
냉정하고 무심해 보이는 이 물질은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운 무심함과
감정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된 어떤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는 금속에 대한 상반된, 착잡한 감정을 드러내려 한다.
금속의 표면에 저항한다.
새기고 파고 깎아내면서 상처를 입히고 그 흠집을 시각적인 존재로 환생시킨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운동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바다 역시 쉼 없이 움직인다.
내 작품에서의 움직임들,
알루미늄 표면에 공구로 상처를 입힌 그 자국들은 관람자의 이동에 따라, 광원체의 성질에
따라 변화하며 움직인다.



이규식 - LEE gyusik
李圭식

200×150cm, 닥종이 위에 아크릴 물감, 2024

LEE gyusik 이규식

이름에는 혈연에 얽매여 강요된 관계와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를 기원하는 서로 다른 욕망이 담겨 있다. '李규식'은 끝이 정해지지 않은 이름쓰기다. 과정이 결과를 대신할 거라는 믿음에서 생겨난 습관이다. 고해성사를 하듯 욕망과 집착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또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삶이 그렇게 의미 없는 반복의 연속임을 깨닫게 되는 건 참으로 잔혹한 예지(叡智) 혹은 예지(豫知)가 아닐 수 없다.



BROWN MOKWA 20240603 01 Youngtaek lee

이용택 - LEE youngtaek

Brown mokwa 20240603

59.4×89.1cm, Mixed medium on paper, 2024

LEE youngtaek 이윽택

요즘 작업은 꽃의 생과 죽음의 사이에서 보이는 시간적 이미지를 공간적으로 현시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사진 찍고, 포토샵 작업하고, 한지 위에 프린팅하고 그 위에 페인팅하는 방식이다. 시들어 간다는 시간의 섭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보이는 공간 속의 현시로 시간이 간다는 것을 알기에 시간을 공간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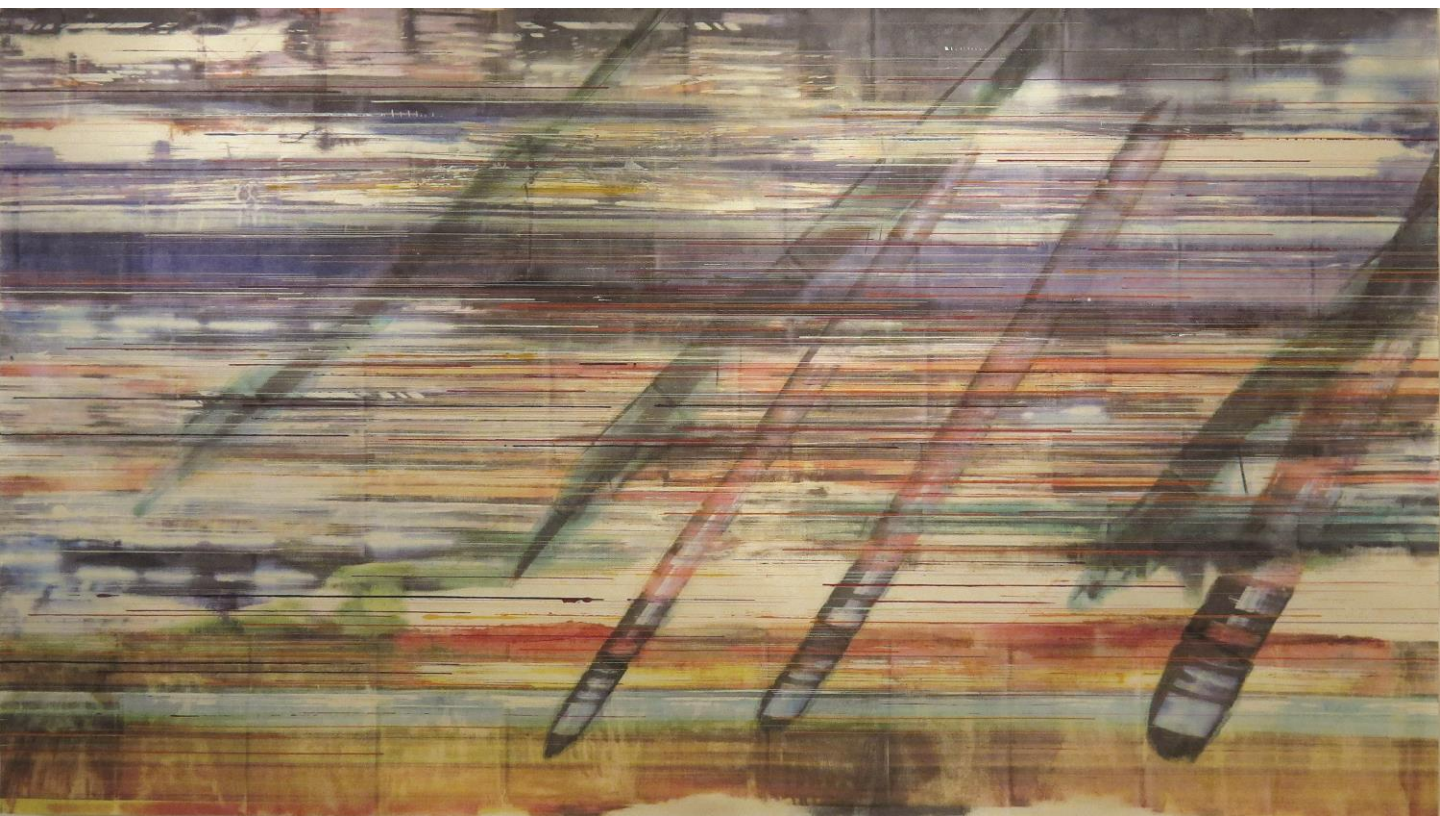


박진명 - PARK jinmyung
똑같은 하루는 없다
106×96cm, 종이 위 먹 과슈, 2024

PARK jinmyung 박진명

시각적인 감성과 감각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순간이다. 똑같은 것만 같은 우리의 삶 또한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계절의 냄새 순환하는 대기의 공기 그속에 숨어있을 수많은 이야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언의 시간과 같다.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의 지속의 틈에 맺혀있는 순간의 감정을 눈으로는 인식 못하는 현재의 감각과 냄새를 그리고 어제를 새기고 오늘을 칠하면서 피어오르는 이미지를 화면에 새긴다.

내가 느끼고 혹은 보았던 감정의 색과 냄새 그리고 그 여운이 화면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노 카츠유키 - UNO kazuyuki
Landscape of Flowing zone

175×309cm, Mixedmedia on japanese paper, 2024

UNO kazuyuki 우노 카츠유키

우리의 세계에서는 어떤 대상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은 다른 영향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파동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그 인식이, 즉 대상의 실체를 이루는 필수 요소가 관계의 상태에서 비롯된 양자적인, 무수하지만 유한한 관측 결과의 집합(그 시점에서의 하나의 양태에 불과한 것의 확률성)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았을 때, 그 존재 방식(여기서 "없음"도 존재 방식의 하나입니다) 자체가 눈앞에 "풍경"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마모토 나오키 - YAMAMOTO naoki

Bye Biden

175×309cm, Mixedmedia on japanese paper, 2024

YAMAMOTO naoki 야마모토 나오키

2024년은 세계 정치가 크게 변동하는 해이다. 개성 강한 소수의 인물에 의해 많은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요즘의 상황과 정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정치인의 순간적인 표정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이지 않는 잉크와 유사한 기법을 이용해 초상화를 그린다. 그림의 재료인 설탕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과거에 그은 선이나 명암을 알 수 없으며, 흰 종이의 공간을 탐색하면서 그려 나간다. 그것을 불에 그을려야만 비로소 형태가 드러난다. 설탕이 타는 냄새와 함께 나타난 초상화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

Saem 어쩌다 마주한 당신의 세계

The World I Happened to Encounter

2024. 8. 21. WED - 9. 2. MON

Opening. 2024. 8. 21. WED. pm 5

충북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 Tel. 070-4224-6240~1

2024. 9. 4. WED - 9. 12. THU

Opening. 2024. 9. 4. WED. pm 5

청주교육대 미술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발행 : Saem

기획 : Saem

주최·주관 : Saem

디자인 : 더문

발행일 : 2024. 8

후원 :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이번 전시회는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This exhibition was sponsored by the Chungcheongbuk-do and Chungcheongbuk-do Cultural Foundation.